

1.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생각은 오늘날 수많은 교회를 영적 수면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값싼 위로로 전락시킨 이들에게 구원은 그저 과거에 일어난 '보험 가입' 같은 사건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우리의 태만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치열한 삶으로의 초대장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심장부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대속(代贖)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무력한 인간을 위해 신이 직접 대가를 치르셨다는 이 사실은 분명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기초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오직 '대속'이라는 단어 하나로만 가두어 둘 때, 치명적인 신앙의 왜곡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영적 태만입니다. 구원을 단지 지옥행을 면하고 천국행 티켓을 거머쥐는 '일회성 사건'으로 전락시킬 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책임과 변화는 사라지고 값싼 위로만 남게 됩니다. 성경은 구원을 멈춰 서서 받는 영수증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 치열하게 달려가는 '경주(Race)'로 묘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출발선에 섰다면, 이제는 꺾대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여정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이 거룩한 경주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빛을 대신 갚아준 '대리인'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먼저 개척하고 앞서 가신 '구원의 선구자'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의 한계와 고통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거센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으셨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곧 우리가 걸어가야 할 지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알아서 다 해결해 주는 '해결사'가 아니라, 우리가 따라 걸어야 할 '길' 그 자체이십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죄 사함의 법정적 선언을 넘어,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렬한 이정표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의 공로 뒤에 숨어 가만히 머무르는 수동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로 죄 씻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는 그분이 걸어가신 거룩한 발자취를 따라 내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과거의 안도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셨으니, 나도 그 길을 가겠다"는 현재의 결단이며 삶의 여정입니다. 십자가는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라, 지고 따르는 길입니다.

골고다의 십자가는 2천 년 전 골고다 언덕에 박힌 채 멈춰있는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죄의 사슬이 끊어졌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사명은 단 하나입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순종의 궤적을 내 삶으로 똑같이 그려내는 것. 구원은 주어지는 선물이자, 동시에 살아내야 할 삶의 무게입니다. 십자가를 구경하는 관객의 자리에서 내려와, 그분이 걸어가신 좁고 영광스러운 길 위로 한걸음씩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2. 나눔

- 위 글을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최근에 끝까지 해내기 위해 가장 노력했던 일은 무엇이었나요?
→ _____
- 본문에서 말하는 신앙의 왜곡은 무엇인가요?
→ _____
- 본문은 구원을 단순히 지옥행을 면하는 '보험 가입'이나 '영수증'처럼 여기는 태도를 지적합니다. 나에게도 은연중에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 나는 대충 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찾아왔던 적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현재 내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 순종해야 하지만 부담스럽거나 피하고 싶은 영역은 무엇인가요?
→ _____
- "구원은 선물이자 동시에 살아내야 할 삶의 무게이다"라는 문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나요?
→ _____
-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 일상(가정, 직장, 학교,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 _____
- 소그룹이 서로의 믿음의 경주를 돕기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은 어떤 것이 있는

지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 _____

3. 함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안일함에 머물렀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길을 여셨듯이, 우리도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게 하소서. 우리 소그룹이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게 하시고,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아멘.